

채란계 자조금 사업

현실성 있는 수납기관의 선정이 급선무

이 승 우 조인주식회사 사장

국내 양계산물의 안정적인 시장 확보와 소비촉진을 기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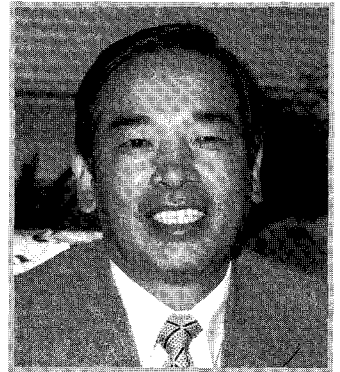
그 자금 총당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당 축종 농가가 스스로 부담하는 자조금 제도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고, 많은 노력 끝에 2002년 5월 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의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서 자조금 시대가 열렸다.

현재 양돈업계에서는 대의원 94%의 압도적 찬성으로 출하 비육돈 두당 400원씩 도축장을 통하여 수납하는 장치 마련으로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어 같은 축산업을 하는 양계인의 한사람으로써 부러움을 사게 한다.

자조금의 확보로 축산물소비촉진활동을 한다면 이를 통하여 시장안정, 소비촉진 등 축산(양계) 농가와 그 관련 산업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의무자조금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산란계 분야에서는 대한양계협회, 농협에서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대의원 구성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납기관도 의견이 분분해 거의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의 결과로 시급한 일은 대의원 구성에 협회차원에서 적극적이어야 하고, 수납기관도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와 현실성 있는 창구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산란노계의 경우 동참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산란노계 도태시 도계장에 판매하는 농장에 원천



징수케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산란노계는 육계와는 달리 도계품의 가치가 워낙 낮아 자조금을 부담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부화장의 경우는 비용 부담이 합리적이라면 국내 산란 병아리 공급처인 6개의 부화장이 수납기관이 되어 효과적인 자조금 수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년간 초생추 시장이 3,000만수로 볼 때 수당 100원씩(가정) 부화장에서 자조금을 수납한다면 30억원 정도의 자조금 조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부화장이 수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적절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모처럼 추진되어 진행되고 있는 자조금 사업이 결실을 이루길 기대해 본다. **양계**

자발적인 자조금 조성에도 관심을

정 광 면 광명농장 대표/이천채란지부장

채란업계는 최근 과거에 보기 드문 초유의 난가가 형성되면서 호황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고가의 사료가격과 고온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으로 실질적인 소득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조금 사업이 활성화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앞선다. 호황기에 십시일반 자조금을 거출하여 불황기에 활용한다면 더 없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02년 우리는 이미 이러한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았다. 임의가 아닌 의무자조금을 거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자조금에 대한 추진 사항이 너무나 지지부진함을 느낀다. 타 축종(양돈, 낙농)은 이미 자조금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세워 이미 거출에 들어간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채란분야는 준비 기구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사업진행이

